

'러브뉴저지', 코로나 퇴치 최일선 의료진에 성금

뉴저지 지역의 한인교회들의 연합체를 추구하는 '러브뉴저지(LoveNJ)'의 회원 교회들이 코로나19 감염 환자들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돋기 위해 정성을 모았다.

러브뉴저지 회원 교회들은 의료진들에게 마스크를 구입하여 전달하기로 하고, 회원 교회들의 형편에 따라 100 달러에서 많게는 500 달러까지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탰다.

이렇게 모아진 기금이 21일 현재 3,700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N-95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다. 러브뉴저지는 해켄색병원과 잉글우드병원 당국과 의논한 끝에 두 병원에 1,500 달러 씩을 수표로 전달하기로 했다. 남은 기금은 어려운 교회나 이웃을 돋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러브 뉴저지 회원 교회와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C & G Church △갈보리순복음교회 △구세군교회 △그레이스장로교회 △뉴저지길고교회 △뉴저지주은혜교회 △방주교회 △복음교회 △복음으로사는교회 △새



'러브뉴저지' 회원 교회들이 코로나19 감염 환자들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돋기 위해 정성을 모았다. 왼쪽부터 잉글우드병원 관계자, 백형두 목사, 박지우 목사

언약교회 △세움교회 △수정교회 △시나브로교회 오△늘
의목양교회 △올네이션스교회
△우리사랑의교회 △유영장로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축복의교회 △푸른초장교회 △필그림선교교회 한성개혁교회
△C. S. O., G. U. M. △복음뉴스 △어린이전도협회.